

서울 출신 유인촌 장관 후보, 원적 따라 호남으로 분류

새 정부 “호남 배려” 황당 논리

인수위 억지 주장에 지역민들 “소도 웃을 일”

새정부가 18일 발표한 장관 후보자 15명 가운데 호남 출신이 3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생활 근거지도 없는데 출생지가 호남이라는 이유만으로 ‘호남사람’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날 ‘국무위원 후보’ 보도자료를 통해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출신지를 전북이라고 밝히면서 이명박 정부에서의 호남 인맥 배제에 대한 논란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인수위가 각료 내정자 가운데 호남 출신이 2명에 불과한 것을 의식, 사실상 서울이 고향인 유인촌 내정자를 전북 출신으로 분류, 호남 인맥이 3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유 후보자는 이와 관련, 이 당선인 대변인실을 통

해 “아버지 고향은 충남 서산이고 한국전쟁 때 부모님이 전북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에서 나를 낳으셨다”며 “이후 서울에서 자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지역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북에서 태어나기만 하고 이후 서울에서 자라고 성장한 유인촌 내정자를 호남 출신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아전인수격으로 호남인맥을 분류하는 것은 인수위 구성 자체는 물론 청와대 수석 인사, 각료 인사 등이 영남 편향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주홍 특임장관 내정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호남 인맥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 내정자가 순천 출신이기는 하지만 고등학교부터 서울에서 성장한다든가 사회적 활동도 주로 중앙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 내정자는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나는 순천에서 태어나 성도초등학교와 순천중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 덕수고를 나왔다”며 “고향인 광주·전남을 수시로 방문하는 것은 물론 순천중학교 동문회에도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인수위가 유인촌 문화부장관 내정자의 출생지만을 내세워 호남 인맥으로 분류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당선인이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 15명 중 영남출신은 4명, 수도권 출신이 4명이고 충청권 출신이 3명, 호남 출신이 2명(정운천·남주홍)으로 나타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통합민주 ‘공천 혁명’ 가능할까

공심위 24일까지 공천 접수

통합민주당이 19일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안료와 함께 4·9 총선 후보 공모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인 공천경쟁이 시작했다. 공심위는 24일까지 공천 접수를 받는다.

당 지도부와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공천혁명을 연일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바늘구멍’ 경쟁이 예상되는 호남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

무엇보다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공심위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공천혁명이 가능할지 여부가 당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내부인사의 경우 당내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박 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외부인사 수(7명)가 내부인사 수(5명)보다 많아 공심위의 독립성만 담보된다면 상당히 파격적인 공천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여성예비후보자들이 지역구 20% 공천, 비례대표 50% 할당 등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박 위원장 스스로도 ‘대형사고’의 가능성을 여러차례 시사해온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외부 공심위원들은 당 해신위원을

지난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비롯해 의사, 시인, 재야 역사학자, 언론인 출신 등 다양한 경력군(群)으로 이뤄져 있고 박 위원장은 위원 인선 기준

을 개혁공천 가치를 공유하는 ‘코드인사’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추천

기구 별도 설치 등 공심위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천과정에서 지도부의 ‘입김’을 완전히 차단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9 총선 현장

장, 시민단체협의회 공동의장 등 다양한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광주 동구 살림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지지를 호소.



양형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절실”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은 20일 광주시 각장애인협회를 방문, 임원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고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

양 의원은 이날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적 권리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



김영진 “경험·인맥으로 서구 발전 견인”

○김영진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4선 의원, 농림부장관을 지내면서 쌓은 인맥과 경험을 토대로 서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출마의 변을 피력.

김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 소외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를 견제하려면 경륜있고 능력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입성, 호남의 목소리가 반영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



김경천 “경험 토대 동구살림 챙길 것”

○김경천 광주 동구 예비후보가 지난 15일 선거 사무소 개소 이후 각종 행사에 참석하면서 표밭 공략을 가속화.

김 후보는 “여성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 광주 YWCA 사무총



김영룡 “총선 출마” 표발같이 시동

○김영룡 전 국방부차관이 19일 전남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18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시작.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정·청에서 쌓은 폭넓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심분 활용,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내고, 당의 재집권을 실현하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출마 소감을 피력.



김동신 재향군인회 정기총회 참석

○김동신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는 19일 ‘광주·전남 재향군인회 정기총회’에 참석,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국가를 지켜온 재향군인들을 격려.

통합민주당내 유일한 국방·안보분야 전문가인 김 후보는 “우리 군이 지금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 것은 국민의 단합된 후원 때문”이라며 “육군참모총장 등을 지내며 군사력 강화에 기여해 온데 보람을 느낀다”고 술회.



오형근, 북구청 환경미화원 격려

○오형근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북구청을 방문, 시민들을 위해 하루를 여는 환경미화원을 격려하고 지지를 호소.

오 후보는 “시민들이 아침을 상쾌하게 맞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이라며 “환경미화원을 비롯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



김태욱 “돈 버는 문화 콘텐츠 마련”

○김태욱 한나라당 동구 예비후보는 19일 “광주와 한나라당의 상생의 길을 열기 위해 나섰다”고 출마를 공식 선언.

김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의 현안 등 호남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면서 “문화예술인으로 ‘돈 버는 문화 콘텐츠’를 마련, 문화수도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다짐.



유종필, 통합민주당 대변인 발탁

○유종필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가 19일 통합민주당 공동대변인으로 발탁되면서 17대 국회 기간을 포함, 약 5년간 원내 제1당부터 2·3·4·5당 대변인을 모두 지낸 기록을 수립.

유 대변인은 이 기간 동안 새천년민주당, 민주당, 중도통합민주당, 통합민주당 등 4개 정당을 대변했으며 이 과정에서 스스로 탈당해 당적을 바꾼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관심.



김승남, 첨단 재래시장서 간담회

○김승남 광산구 예비후보는 19일 첨단과 신창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첨단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등 표밭갈이에 분주. 김 후보는 “시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이를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소득 양극화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서정성, 남구 선거사무소 개소

○서정성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1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활력있는 남구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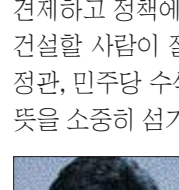
을 다하겠다”면서 표밭갈이에 돌입.

서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참신함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에 입성,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더이상 듣지 않도록 힘을 쏟겠다”면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



김재두 “아담다운 야당 건설해야”

○김재두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는 19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행보를 본격화. 김 후보는 “한나라당을 견제하고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아담다운 야당’을 건설할 사람이 절실한 때”라며 “13년간의 정당 활동,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뜻을 소중히 섬기는 정치를 펼치겠다”며 지지를 당부.



이윤정, 남구 선거사무소 개소

○이윤정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19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남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출마를 공식화.

이 후보는 “에너지플러스터단지 유치 등의 남구 발전 방안을 담은 담은 북(福)주머니 프로젝트를 통해 남구를 살맛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면서 표밭 공략에 돌입.



구희승 “정책토론회 갖자”

○구희승 순천시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공천심사와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제안.

구 후보는 “농림수산부와 산업자원부·통상장관회담 한국대표, 6년간 관사를 지낸 경험을 토대로 국회에서 순천 발전을 위한 효율적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언급.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